

코로나 파죽지세... 임진각 제야의 종소리 못 듣는다

도 “연말까지 2.5단계 격상 대비
대면행사 취소 사전영상 대체 검토”

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
맞이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연인·가족
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들던 ‘임진각 타
종소리’를 올해는 들을 수 없게 될 전망
이다.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기도

가 올해 임진각 제야행사를 대폭 축소해
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.

7일 도에 따르면 매년 파주 임진각에서
진행해 온 제야행사를 올해는 코로나19
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하는 방안을 유력
하게 검토하고 있다.

임진각 제야행사는 1999년부터 파주
임진각에서 평화의 종 타종을 비롯해 도
의 대표적 해넘이·해맞이 행사다.

도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달 31일에
서 2021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 전후
파주 임진각에 많은 인원이 모여 코로나
19 방역에 구멍이 뚫릴 것을 우려하며 이
같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.

특히 정부가 8일부터 연말까지 코로나
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권의 사회적 거
리두기를 2.5단계로 격상하고 강력한 방
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

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
어렵다고 결론 지었다. 대신 기존에 진행
하던 제야행사가 아닌 사전 제작 영상으
로 행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
이전에도 임진각 제야행사는 2010년 구
제역, 2016년과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
(AI) 발생으로 취소된 바 있다. 지난해는
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으로 인해 남한산
성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기도 했다.

도 관계자는 “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
기 방침에 맞춰 대비 없이 대면으로 행사
를 진행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”이라며
“타종행사를 비롯해 임진각에서 진행해
오던 제야행사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방
안을 검토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서울시도 올해 67년 만에 보신각
‘제야의 종’ 타종행사를 취소하기로 했
다. 임하연 기자 lhy@kohoibo.co.kr